



올 겨울 대작 잇단 개봉에 극장가 ‘후끈’

‘신과 함께’ ‘1987’ ‘강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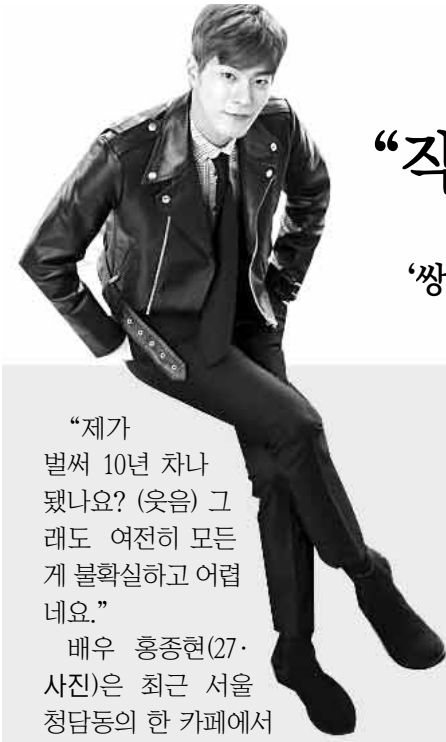
‘스타워즈’ 등 할리우드와 맞대결

하정우, 두 작품 출연해 눈길도

올 겨울 극장가에 ‘빅매치’가 펼쳐진다. 100억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된 한국영화 대작들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쏟아진다. 영화 ‘신과 함께’가 12월 20일로 개봉 시기를 가장 빨리 못 박은 데 이어 ‘1987’ ‘강철비’ 등 한국영화와 ‘위대한 쇼맨’ ‘스타워즈 : 라스트 제다이’ 등이 겨울 대전에 뛰어든 채비를 하고 있다. 연출 관객이 가장 많은 겨울 시장의 성패에 따라 한해 농사가 달라지는 만큼, 배급사들도 흥행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올겨울 최대 이벤트는 영화 ‘1987’과 ‘신과 함께’의 대결이다. 두 작품의 겉은 전혀 다르다. 그러나 둘 다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고, 하정우가 주연으로 출연해 ‘하정우 vs 하정우’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1987’은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시작으로 6월항쟁까지 대한민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된 1987년의 이야기를 다뤘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대공처장 김운석, 대공형사 박희순을 비롯해 부검을 강행하려는 검사 하정우, 기자 이희준, 교도관 유해진, 87학번 신입생 김태리 등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냈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화이 : 괴물을 삼킨 아이’를 만든 장준환 감독의 신작이다. 배급사 CJ E&M은 12월 중 이병헌이 주연한 ‘그

것만이 내 세상’을 한편 더 개봉하려 했으나 내년 초로 늦추고, ‘1987’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CJ E&M은 올해 들어 12편의 한국영화를 배급했지만, ‘공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흥행에 실패해 ‘1987’의 흥행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1987’의 총제작비는 145억원, 손익분기점은 410만명이다. CJ E&M의 윤인호 홍보팀장은 “올해는 87년 6월항쟁이 30주년 되는 해”라면서 “‘1987’은 실화의 힘을 느낄 수 있고, 영화적 긴장감은 물론 배우들의 명연기를 보는 재미도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신과 함께’는 올해 최대 화제작 중 하나다. 주호민 작가의 동명 인기 웹툰이 원작으로, 저승에 온 망자가 그를 안내하는 저승 삼차사와 함께 49일 동안 7개의 지옥에서 재판을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하정우·주지훈·김향기가 저승 삼차사 역을, 차태현은 저승의 재판을 받는 의로운 망자 자홍 역을 맡았다. 이 영화는 국내 최초로 1, 2편이 동시 촬영됐고, 총 제작비만 무려 400억원에 달한다. 7개 지옥의 모습을 컴퓨터그래픽으로 모두 구현했다. 투자 배급을 맡은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신과 함께’의 흥행에 사운을 걸고 있으며, 영화계도 새로운 실험이 성공할지 주목하고 있다. 롯데엔터테인먼트의 감독형 홍보팀장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던 평범한 사람이 의도치 않게 죄를 짓게 되면서 이를 반성하고, 징벌을 받는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서 “관객들도 자신의 삶을 한 번씩 되짚어 보고, 주인공에 감정을 이입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강철비’도 12월 중 간판을 단다. ‘강철비’는 북한 내 쿠데타가 발생하고, 북한 권력 1호가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펼쳐지는 첩보 액션물이다. 정우성이 북한 최정예요원 엄철우 역으로, 박도원이 남한외교 안보수석 광철우로 등장한다. ‘변호인’을 연출한 양우석 감독의 신작이다. 배급사 뉴(New)의 양지혜 홍보팀장은 “가까운 미래가 배경이지만, 북한의 핵 문제 등 지금의 한반도 정세가 현실감 있게 반영된 작품”이라며 “또한 첩보 액션의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총제작비는 157억원, 손익분기점은 440만명이다. 할리우드 영화 2편도 도전장을 내민다. ‘스타워즈 : 라스트 제다이’는 ‘스타워즈’ 시리즈 8편으로, 라이언 존슨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마크 해밀, 데이비 리들리, 존 보에 등이 출연한다. 레이와 핀, 포 등 새로운 세대를 통해 빛과 어둠, 선과 악의 대결을 그린다. 국내에 팬이 많기는 하지만 ‘스타워즈’ 시리즈는 그동안 유독 한국에서 큰 흥행을 거두지 못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스타워즈 : 깨어난 포스’(2015)도 국내에서는 330만명을 동원하는 데 그쳤다. 휴 잭맨 주연의 뮤지컬영화 ‘위대한 쇼맨’도 기대작이다. 쇼 비즈니스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P.T. 바넘이 지상 최대의 쇼를 만들기까지 과정을 그린 작품. 화려하고 역동적인 군무와 노래가 어우러져 뮤지컬 영화만의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에 도 뮤지컬영화 ‘라라랜드’가 개봉해 350만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배우인생 10년 홍종현

“작품 욕심 커졌죠”

‘쌍화점’ ‘엘리스…’ 등 다수 출연

“제가 벌써 10년 차나 됐나요? (웃음) 그 래도 여전히 모든 게 불확실하고 어렵 네요.” 배우 홍종현(27·사진)은 최근 서울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데뷔 10주년 소감을 묻자 이같이 답하며 “데뷔 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이었다면 요새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 캐릭터의 비중이 늘고, 그를 수 있는 작품의 폭도 넓어지는 환경에서 오는 불안함과 욕심, 기대, 신중함 등 여러 감정이 공존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 모델로 데뷔한 그는 그동안 영화 ‘쌍화점’(2008), ‘위험한 상견례2’(2015), ‘엘리스 : 원더랜드에서 온 소년’(2015)과 드라마 ‘정글피쉬2’(2010), ‘무사 백동수’(2011), ‘난폭한 로맨스’(2012), ‘친애하는 당신에게’(2012), ‘전우치’(2012~2013), ‘연애조작단 : 시라노’(2013), ‘마마’(2014),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2016), ‘왕은 사랑한다’(2017) 등에 출연하며 모델 출신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홍종현은 최근작 ‘왕은 사랑한다’에 대해 “전작도 사극이었기에 부담도 있었지만, 오히려 잘하면 그만큼 더 좋은 반응이 얻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좋게 봐주신 분이 많아 감사하다. 개인적으로 결말에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함께 출연한 임시완, 윤아와 친해진 게 큰 수확이라고 밝혔다. 홍종현은 “직접 차를 빌려 운전해서 시완이 형 면회도 다녀왔다”며 “여러

고충이 있을 텐데 묵묵하게 견디는 모습이 매우 멋있었다. 남자다워졌더라”고 말했다. ‘미필’인 홍종현은 “군대에 가는 게 좋기만 한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다. 그래서 전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닥치면 가려고 한다”며 “2019년쯤 가고 싶고, 그 전까지는 작품을 부지런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에는 한 3개 정도 하고 싶다”며 “사극을 연이어 했으니 현대극이나 장르극이면 좋겠다”는 희망을 드러냈다. 함께 호흡해보고 싶은 배우로는 과거 SBS TV 음악 방송 ‘인기가요’에서 MC로 호흡을 맞췄던 김유정을 꼽았다. 홍종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로 ‘건강’을 꼽았다. 그는 “10년 전에는 그 중요성이 와 닿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며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친한 친구인 배우 김우빈이 암 투병 중인 것과 관련, “가끔 연락하는데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안다. 기사로 아픈다는 소식을 접해 굉장히 미안했고, 그래서 처음에 연락을 더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빈이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친구라 관찮으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미안하더라”며 “응원과 기도한다. 금방 좋아질 거라 믿는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홍종현에게 마지막으로 “매년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연기의 가장 큰 매력”이라며 “같은 뜻을 가진 각 분야의 사람이 모여 하나를 만드는 데서 느끼는 성취감이 중독적이다. 내년엔 더 ‘다작’하는 배우가 되겠다”고 인사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결여서 세계속으로(재)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억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영화가 좋다 (재)	50 20세기 소년소녀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국제상 수상작 시리즈 넥스트 휴먼 (재)	50 마녀의 법정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00 문화사색 5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대 2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kbc.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전라도 천년 새로운 천년의 도약 전라도인 우리는 어디 서있는가?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빛고를 행복아카데미	50 VJ 특공대 (재)	35 드림 주니어 스페셜			
2	50 콘서트 필 (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05 꾸러기 식사교실 35 사이닝스타	00 뉴스브리핑		
3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 스페셜 영암 바둑박물관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05 통일전망대 5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재) 30 숨터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드래곤에그 30 실험하는남자들 (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별별머느리 (재)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방송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살맛나는 세상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재)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내 남자의 비밀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35 하하랜드 스페셜 55 별별머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40 가요무대					
10	40 KBS 뉴스라인	00 마녀의 법정	00 20세기 소년 소녀	00 사랑의 온도		
11	25 월요기획	10 건반 위의 하이애나 (재)	10 정웅성의 인생극장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15 이웃집 찰스 (재)	35 영상앨범 산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25 겹겹의 녀석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지중해 맛기행 - 시칠리아 맛에 빠지다〉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허종선이 과학쇼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월드 08:00 당동당 유치원 1~2 08:30 플라워링 하트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몬카티 09:15 소피 루비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굴뚝과 우영지집〉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과학 다큐 비문드 (재) 13:40 엄마를 찾지마(재) 14:30 레이디 버그 15:00 우주탐험가 젯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6:00 엄마 깨우리 16:15 두다다쿵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당동당 유치원 1~2(재) 17:15 로보카 폴리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7:45 호기심 소녀 도토.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19:00 로보 발명왕 러스티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첫 날 내리면 시베리아 가장 추운 마을 오이마콘〉 21:30 한국기행 〈가을에 더 울주 바람 지휘하고, 역사 노래하고〉 21:50 EBS 다큐프라임 〈불멸의 마야 옥수수 문명을 찾아서〉 22:45 엄마를 찾지마 23:35 가칠너리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세계의 드라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48년생 예상 밖의 국면 전환으로 인해서 공허해지는 운세이다. 60년생 망심한다면 급경사의 내리막길로 치달을 수도 있다. 72년생 너무 완벽하게 처리하려다 보면 추진력이 떨어지느니라. 84년생 동산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4, 55	午	42년생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흥행의 기운을 함께 나눌 것이다. 54년생 지금이라도 실행해야 한다. 66년생 완전하지 않으면 무 의미하다. 78년생 기득권을 인정하고 대세에 따르는 것이 순리 이다. 90년생 이익은 생기지만 소망이다. 행운의 숫자 : 04, 14
丑	49년생 잡과 거짓을 헤아리기 힘들 것이니라. 61년생 총괄무진 할 것이니 빠뜨림이 많을 수밖에 없다. 73년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85년생 물라서가 아 니라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이니라. 행운의 숫자 : 10, 24	未	43년생 사려 깊어 처리해야겠다. 55년생 규칙적이라면 신뢰감을 준다. 67년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79년생 승리의 여신은 노력을 사랑하느니라. 91년생 현상이 보 이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26, 18
寅	50년생 속히 결정하지 못한다면 좋은 기회를 놓치기 쉽다. 62년생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74년생 핵심을 꿰뚫어 볼 혜안이 필요하다. 86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긴요하게 처리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지 않나 살펴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11, 25	申	44년생 생활에 보탬이 될 만한 여러 가지의 이익을 얻는 바가 많 고 호평을 들을 수도 있다. 56년생 기다리고 있으면 들어올 것이 다. 68년생 결정적인 행국이 조성되는 마당이다. 80년생 진행한 다면 무조건 성사된다. 행운의 숫자 : 22, 54
卯	51년생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편하다. 63년생 사람의 마 음이 다 같을 수는 없음이니라. 75년생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 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허하다. 87년생 기운이 상승하여 길지 로 안내하는 판도이다. 행운의 숫자 : 68, 88	酉	45년생 현재의 상황이 힘들더라도 과정에 충실하다보면 금전운 에 대박 나게 되어 있다. 57년생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행 하자. 69년생 서로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81년생 절실한 시기에 귀인의 도움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80, 67
辰	52년생 드러나는 형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인데 틀림없 다. 64년생 헛수고가 될 공산이 크다. 76년생 자신의 내부에서부 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88년생 실수 로 인한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09, 85	戌	46년생 핵심사항의 확보를 위해 상호간에 이진투구 하는 형상이 로다. 58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 원칙적 설정이 길사로 이끈다. 70년생 절제할 수 있어야만 유지된다. 82년생 처음에는 당황하 겠지만 머지않아 적응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5, 94
巳	53년생 확실한 의사 표시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65년생 추진 하는 방향과 현상이 정비례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라. 77년생 매우 혼란스러운 양태이다. 89년생 구태를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문신함을 추구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6, 36	亥	47년생 사세의 가닥을 쳐야할 결정적인 시기이니라. 59년생 과 정은 힘들지라도 결과적으로 이익이 따를 것이니 행함이 이로우 리라. 71년생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리라. 83년생 대접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41, 3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회원!” ☎010-9790-8237			